

“불교적 인격교육의 이념과 방법”에 대한 논평

- 교육적 과제에 대한 이론전개의 필요성 -

한 명 희

(동국대학교)

“불교적 인격교육의 이념과 방법”에서 “방법”의 의미는 교수법이라는 좁은 의미가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인간형성을 위한 일체의 접근”이라는 의미를 전제로 하고 토론을 전개하고자 한다.

이같은 시각에서 김박사의 논문은 이념면에서는 심도 있고 체계적으로 잘 전개되었다고 보지만, 교육의 실천과 관련된 교육학적 문제에 대한 이론 전개를 기대한다면 몇 가지 다루지 않은 과제가 있다. 그것은 불교적 인격교육에 접근하는 교육학적 과제로서는 대략 다음과 같은 4가지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접근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불교교육 이념의 실현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적 방법론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이다. 방법론에 관하여 김박사의 논문은 “종교적 회심”, “반야바라밀다의 수행”, “깨달음의 현전화(現前化)”라는 것으로 논리를 전개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방법론의 원리를 얘기했을 뿐, 그것을 “어떻게” 교육적으로 접근할 것인가 하는 문제까지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했다.

즉, 그 네 가지 방법론적 원리는 실천의 계기와 방향을 제공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문화·사회생활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구체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천적 접근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 불교계 일각에서 그러한 초월적 원리를 어떻게 현실적이고 실존적으로 구체화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운동이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한 것들이 교육실천의 논리로 재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념의 생활화 및 구체화가 특히 강조되어야 하는 이유는 불교 자체의 특성이 이론적으로 자칫 오해하기 쉽게 방향 지워져 있기 때문이다. 물론 불교도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 존재에 대하여 부정적인 기초 위에 서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기독교의 하늘나라 개념은 이 세상의 왕국과는 대립되는 개념이며 불교의 열반의 개념 역시 모든 현상계에 대립되는 개념이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세상의 타락의 책임은 사회적, 윤리적 판단의 주체인 인간에게 있지만, 불교에서는 무상한 존재, 무명의 존재 그 자체에 이 세상의 고뇌가 있다고 보고, 이 무상한 세계로부터의 해탈을 중시하고 있다는데 차이가 있다. 그 때문에 기독교는 이 세상의 생활을 매개로 주체적 판단에 의하여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적극적 작용을 권하는 이론이 내장되어 있다. 이에 반하여 불교는 만물의 불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살생을 금하고 자연과의 화합을 주장한다. 그것은 자아부정의 수용과 해탈을 달성하는 합일일 뿐, 거기에는 상대방을 변혁하려는 문화적, 창조적인 활동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불교의 이상과 현실 사이에 거리가 상대적으로 크게 되고, 그것은 교육적 힘의 실현화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교이념의 문화화를 위한 문화의 중추적 접근이 필요하고, 이것이 곧 불교 이념의 구체적 실천을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로 제기할 수 있는 교육적 문제는 문화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공교육적 일반 교육에서 불교의 역할에 관한 이론 구축에 관한 것이다. 즉, 모든 종류의 종교교육에는 종파교육적 요인과 종교성(religiosity) 교육의 두 측면이 있다. 김박사의 논문 서두에서 소개한 윌리엄 제임스의 “종교적 인격성”이나, Streng의 “궁극적 변화의 수단으로서의 종교”에 대한 정의는 모두 종파적 정의라기 보다 종교성을 중심으로 한 종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정의라고 볼 수 있다.

불교가 교육의 문화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공교육적 일반 보통교육에 접근하기 위하여는 불교의 종파적 측면보다는 종교성 측면에서의 궁극적 변화의 수단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연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사학에서는 종파적 측면의 교육도 필요하지만, 상대주의와 다원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현대인의 인간교육에 기여하기 위하여는 종교성을 앞세우는 것이 보다 생산적일 뿐 아니라 불교정신에 의미 있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교성 교육을 위하여 불교적 인식의 바탕을 설명하되 배타적 종교로서가 아니라 종교다원주의의 입장에서의 공통의 궁극적 관심에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유리한 바탕을 불교가 지니고 있다고 생각된다.

불교인격교육을 위한 세 번째 연구과제는 인격형성력으로서의 한국 불교의 현실을 분석해 보고 개선의 길을 찾는 일이다. 교육은 인간형성작용이고, 그런 면에서 한국 불교의 현실은 그 자체가 종교교육의 실천적 측면을 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불교뿐 아니라 한국의 대부분 종교의 현실은 “궁극적 변화”로서의 종교적 차원보다는 다른 측면에 기울어진 면이 비판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력으로서의 현실종교의 문제는 극복되어야 할 과제인 것이다.

(1) 종교가 일반적으로 생활화되지 않는 형이상학적 측면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고,

(2) 자신의 구원이나 극락만에 흥미를 가지는 이기적 수준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으며,

(3) 자신의 현세적 복만을 추구하는 기복적 신앙의 생각이 강하며.

(4) 유·불·선의 혼합 과정에서 음양, 오행, 풍수지리설 등과 함께 진행됨으로서 불교 본질에서 피리되는 현상이 있다.

그러므로 교육의 현실적 과제는 이같은 경향을 어떻게 극복하고 김박사가 논문에서 제시한 불교적 인간상 형성으로 어떻게 이끌어 갈 수 있는가 하는 방법론적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불교의 인식론적 특성이 서양이론에 주로 기반을 둔 기존의 교육학적 인식론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연구과제가 있다. 이 문제는 일견 인격교육이론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기 쉽지만, 불교의 인식론이야말로 인격교육에 핵심적인 이론을 제공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 지적하고자 한다.

그것은 불교의 인격교육의 이상은 불교의 인식론적 핵심인 “불교”, 즉 깨닫는다는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김박사가 제시한 다음의 불교의 이상적 인격교육의 속성 4측면을 살펴보면 모두 “깨닫는다”, “본다”는 인식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1)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

(2) 세계와 자기가 하나라는 자각에서 오는 자비

(3)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무집착은 “봄”이 없이 가능하지 않음)

(4) 주체적 자기완성을 위한 노력(주체성은 “봄”에서 옴)

그런데 불교의 이같은 “본다”, “깨닫는다”는 인식론적 특성은 현대 지배적인 교육 목표체계의 한계를 느끼게 해줄 뿐 아니라, 전인교육적 의미에서 인식론적 문제를 생각하게 해주는 학문적 도전을 제기해 온다.

왜냐하면 “불교”에서 “본다” “깨닫는다”라는 인식은 단순히 아는 것(knowing)이 아니기 때문이다. “본다”는 체험이고, 체험은 “본다” 그 자체라는 점을 불타는 언젠가 강조하였다. 봄이 없는 앎은 아무런 깊이가 없으며, 또한 삶의 실재를 이해할 수 없게 된다.

깨달음의 체험으로서 “봄”은 객관적 측면과, 양면이 있다. 객관적 인식은 부다가 끊임없이 설교한 「무아」라든가 「연기」와 같은 주제로서 무명을 밝히는 일이고, 지혜와 직관이 수반되는 과정이다. 주관적 인식의 측면은 깨달음의 체험 이후 생기는 직접적인 느낌이며, 심리적이고 실존적인 인식의 측면이다. 예컨대 “무아”의 깨달음에서 자비로 이어지는 과정이다. 동시에 이것은 신체와 마음의 통일과 집중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또한 신체적이기도 하다. 따라서 “무아”를 깨닫고 그것을 직관한다는 것은 단순한 개념이나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 인격이 개입되는 지혜에 의하여 체험적으로 보고 깨닫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육계에서 지배적인 B. S. Bloom의 목표체계의 인지적(cognitive), 정의적(affective), 그리고 심체적(psycho-motor) 측면의 목표분류를 전인적 인격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이 그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1) 교육목표의 인지 정의 심체의 영역은 우리가 조작적으로 정해 놓은 논리적 기준일 뿐, 실제로는 분리할 수 없는 전체성으로 존재함을 뜻한다. 그러나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논리적 범주가 실제의 범주와 일치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음을 일깨워 준다.

(2)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목표분류의 철학적 전제는 과학주의적, 상대주의적, 공리주의적 지식관이다. 이같은 지식관에 전제한 분류에는 불교의 “깨달음” “봄”이라는 체험적 인식이, 즉 인간의 전체성이 개입되는 인식이 위치할 수 있는 자리가 없으며, 동시에 직관-지혜의 자리도 없다는 점이다.

이같이 현대 교육과 불교적 깨달음의 인식론적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지

식교육이 왜 인격교육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지 그 원인의 한 측면을 생각하게 한다. 위의 두 가지 원인은 우리의 지식교육을 얇과 인격의 분리현상을 가져오고, 얇 자체의 인격적 전체성을 수반하는 일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아는 것이 많아도 인간으로 보아서는 유치하고, 배운자가 도덕적으로 높지 않을 뿐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저질적인 경우가 드물지 않은 현상은 곧 그러한 지식교육의 문제를 표출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같은 불교의 종교성의 측면은 종교다원주의를 표방하는 공교육 속에서도 공유될 수 있는 측면일 뿐 아니라 교육이론의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창조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다. 또한 이같은 종교성의 교육은 교육의 본질 자체를 되찾기 위한 필수적 속성이고, 인격교육이 핵심을 차지하는 전인교육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국교육에서 이점이 결여되어 있음에 관심을 돌려야 할 것이다. 이것은 P. Phenix가 「의미의 영역」의 영역에서 말하는 포괄적 의미(Synoptics)의 위상을 되찾는 길이며, 이를 위한 불교의 역할을 크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